

핵심 파고든 특검...“청와대 공개 압수수색” 압박

박대통령 뇌물죄·세월호 7시간 규명 강공 드라이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초기 단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각종 비위 의혹에 승부를 걸고 나왔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부터 비롯해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강경 드라이브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팀은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뜻으로,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청와대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두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방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정호성 추가범죄 여부 추적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될 수도

“정유라에 모든 조치 다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이르면 이번 주에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할 핵심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이 특검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와 관련, “정 전 비서관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며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을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매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의 추가범죄 가능성 및 기존 의혹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중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혹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며 “그런 부분

도 이번 추가조사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외에도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폭넓게 조사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는 “조 대위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와 관련된 부분을 포괄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위가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출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조 대위의) 출국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가 전날 특검 조사 중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어차피 모녀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독일에 머무르며 귀국을 미루고 있는 정 씨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는 등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재소환한 데 대해서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박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공개되나

27일까지 현재에 제출할 듯

검찰 수사기록 확보 실무협의

내달부터 본격 변론 돌입 준비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곧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궤도에 오른다.

현재에 따르면 성탄절인 25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했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현재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범죄추위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범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했다. 아울러 본격 심리를 위한 증인 신청을 받고 증거를 채택했다.

특히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연내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추가로 열어 마무리한 뒤 내년 초께 본격 변론에 돌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는 1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2차 기일 전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도 연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 측과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다. 검찰의 최초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 페이지에 이르며, 이중 현재가 확보하는 분량과 내용에 따라 향후 변론절차에서 탄핵심판정으로 부를 증인의 윤곽도 드러나게 된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현재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법무부의 견은 탄핵소추가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지켰는지 검토할 정본도 제출했다는 ‘형식’ 자체에 방점을 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요구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더욱 구체화해 현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23일 “기존에 공개한 세월호 당일 행적을 보완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현재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핵심판 재판부는 전날 1차 준비 기일에서 “대통령이 당시 어디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시간대별 장소와 업무 행위 등을 세분화해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특검 전담팀 꾸려 최순실 재산 추적

규모·조성경위 등 파악 나서

유럽 수조원 은닉 의혹 제기

박대통령과 거래 내역도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 속기소)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별도의 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최씨 측이 불법 축제한 재산 규모를 규명하고자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제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국내외에 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조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씨 측과 박근혜 대통령 간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최씨에 대해선 수백억원대 자산가라는 소문만 있

을 뿐 정확한 재산 규모와 축재 과정은 의문에 싸여 있다. 한 언론은 최순실씨 측이 독일·스위스·영국·리히텐슈타인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000만원 어치를 현금 결제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히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으로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이처럼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은 철저해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 최대 4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 /연합뉴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불출석 통보...“구치소 청문회” 무산되나

최순실 씨가 26일 서울 구치소에서 열리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현장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특위 측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25일 “세 증인의 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끝내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산

된다. 다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증인들이 마음을 바꿀 경우 출석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국조특위는 세 증인이 앞선 청문회에서 각각 두 차례씩 불참하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22일 전체회의에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미국으로 수출하는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는 육질이 단단하여 씹힘성이 좋은 고급횟감입니다.
- 초밥용 횟감으로 최고인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에는 기능성 성분이 EPA 및 DHA 등의 함량이 많아서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수산물을 많이 먹는 에스키모인, 일본인은 무병 장수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선 중에 많이 들어있는 EPA, DHA, 타우린 등의 기능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생선횟감으로 치는 광어보다 참송어의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을철의 최고의 횟감인 전어와 지방 함량이 비슷합니다. 한편, 기능성 성분인 EPA 및 DHA는 전어의 15배, 도다리의 8배 높습니다. 따라서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를 먹으면 성인병 예방효과로 인하여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동왕의녹차 참송어 드시고 성인병예방과 백세건강하세요.~~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하동군어류양식업연합회 / 하동녹차참송어영어조합법인

● 구입·유통문의 | 055)883-9715